

# 신안군 '귀어귀촌 성지'로 뜬다

### 전국 첫 신재생에너지 배당금 지급·다양한 지원 정책에 주목 올들어 70여 가구 정착...전국 청년·퇴직자들 귀촌 문의 쇄도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및 다양한 귀촌지원 정책 등을 펼치자 귀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70여 가구가 귀촌한 가운데 전국에서 청년들과 퇴직자들의 귀촌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안좌면과 자라도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나이와 상관없이 1분기 1인기준 12만원에서 51만원까지 지급 받았고 매년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귀촌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 중인 지도와 사업도도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되면 전 주민이 배당금

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입자도와 중도, 2023년 비금도와 신의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조성되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협동조합에는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 등 52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신안군

대다수 주민들이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의 청년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어·귀촌, 임신·출산, 교육,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귀촌 유인에 힘이 되고 있다.

귀촌 희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물론 교통여건과 지원정책, 빈집 등의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신안군 관계자는 전했다.

퇴직 1년차인 최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씨는 "퇴직 전부터 귀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배당금 관련 기사를 보고 이왕이면 배당금도 받고 귀촌의 꿈도 이룰 수 있어 신안으로 귀촌을 확정하고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과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귀촌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신안 도초도 수국 800만 송이 만개 신안군은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도초도에서 '섬 수국 랜선 축제'를 개최한다. 도초도에는 수국공원 24만본, 환상의 정원 27만본 등 58만여본의 핑크, 블루, 퍼플 등 다채로운 수국꽃 800만 송이가 피었다. <신안군 제공>

## 해남군 대하 종자 200만 마리 방류

### 11월까지 바지락 등 535만마리 어촌계 52곳 수산자원 조성 총력

해남군이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하 종자 200만 마리를 환산면 정외리 바다에 방류했다.

방류된 대하 종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신안 지도)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물량으로 자연산 어미 대하에서 부화 성공 후 크기 1.2cm 이상으로 중간 양성했다.

환산면 정외리의 해역은 자연산 대하 주산지로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군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하 종자 방류를 통해 연안의 수산자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수산자원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방류품종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과 주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되는 바지락, 꽃게, 대하, 보리새우, 해삼, 전복, 붉은솜뱀이 등 해수면 7종과 뱀장어, 자라 등 내수면 2종 등 총 9종을 선정했다.

어촌계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4억 8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바지락 32t과 대하 등 8종 535만 4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원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수산환경 조성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아리랑 시네마

###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 선정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영화를 나누다, 힐링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외 영화 등 다채로운 상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획전에는 ▲가족, 고전문학,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외 영화 ▲판소리 공연 등 다채로운 상영 프로그램 ▲어린이 관객의 오감과 창의력 발달, 청소년 관객의 성장과 치유 등을 주제로 관객 맞춤형 영화 등이 상영된다.

기획전은 11월부터 열린다.

진도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 송이도 몽돌 해수욕장.

## 영광 송이도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섬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절경을 품은 영광군 송이도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명소로 뽑혔다.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송이도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찾아가고 싶은 33섬은 '갈기 좋은 섬', '사잔찌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름다운 해변·노을·해안절경 등을 보유한 송이도는 5가지 테마 중 사진찍기 좋은 섬에 선정됐다.

이 섬은 소나무가 많고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송이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앞에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1

km 정도 이어진 해수욕장은 모래가 아닌 몽돌로 이뤄져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또 명물인 큰갯기 몽돌해변은 아름다움 일품과 노을, 해식동굴이 유명하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물결바위, 촛대바위, 거북바위, 매바위 등 기암괴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 정상 부근에는 이색적인 왕소나무 군락지가 펼쳐진다. 이곳은 추억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간조 시 인근 대각이도까지 물이 빠지는 맛에서 나오는 여름 '백합'과 겨울 '대맛조개'는 별미로 사랑받는다.

/영광=이충윤 기자 jylee@

## 완도 보길도 예송 해수욕장 '한적한 해수욕장'

### 해수부 '거리두기 적합 장소' 선정

완도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한적한 해수욕장'에 선정됐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방문객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가족단위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0년 도입했다.

대상은 방문객 5만 명 이하, 해수욕장 인근 5km 이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사

도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 3131명, 편의시설 및 화장실 2개, 샤워시설 1개, 인근 숙박시설 8개소를 갖추고 있어 선정됐다.

특히 청명석이라 불리는 갯돌로 이루어진 길이 약 2km, 폭 50m의 해변으로 해변을 둘러싼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했다.

/완도=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무안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속도

무안군은 무안읍 공공하수처리시설(조감도) 증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안읍 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상수도 사용에 따른 유입 하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군은 하수량 증가에 선제 대응하고자 130여억 원을 들여 기존 4500t에서 6700t으로 1일 처리용량을 2200t 확대한다.

이 증설사업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다.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발생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목표 수질 준수



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